

쌍안경의 '97년 수출동향

- 1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을 중심으로 -

IMF한파속에 조업중단 및 수출입중단으로 임금체불, 직원감원, 상여금반납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수출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출주력품목 중의 하나가 바로 쌍안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쌍안경은 저가의 중국산제품이 시장가격을 흐려놓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견줄만한 품질과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지역에 꾸준히 수출량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96년과 97년의 쌍안경 수출통계를 토대로 쌍안경 시장동향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미주, 유럽지역으로 수출대폭증대

지난 '97년 1~11월까지 국내 쌍안경제조업체가 수출한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123만대이며,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3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주요수출국으로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며, 그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대만 등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쌍안경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는 '96년 53개국에서 45개국으로 줄어든 반면 주요 수출국가로의 수출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97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쌍안경의 주요수출국은 1위가 일본으로서 38만여 대의 888만여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2위는 미국에 37만 여대로, 875만여 달러, 3위는 영국

에 13만대를 수출해 378만여 달러를 벌었다. (표 1참조)

이렇듯 쌍안경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일본, 미국, 영국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변함이 없지만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각국별 수출비율은 일본, 영국으로의 수출비율이 미국으로 대폭 전환되어 증가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전년동기

에 수출한 24만여대(전체수출량의 22.2%)보다 54.5%나 증가한 37만여대(전체수출량의 30.3%)를 수출해 875만달러\$의 높은 수출실적을 올렸다.

그외에도 독일에 8만6천여 대(218만여 달러), 스페인에 5만2천여 대(153만여 달러)로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반면 싱가폴, 대만,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국내 쌍안경의 주요 수출국가가 기존 동남아위주의 국가에서 미주와 유럽국가로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로는 국내 쌍안경제

이커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이 품질면에서 까다로운 유럽이나 미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분석되어지며, 이에따라 저가제품보다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구입을 늘렸기 때문에 수출국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국내 쌍안경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대, 달러〉

구 분	'96년(1~11월 누계)		'97년(1~11월 누계)		전년동기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미국	241,846	6,345,620	373,553	8,758,600	54.4	38.0
일본	416,325	10,912,952	386,441	8,880,387	▲7.2	▲18.6
영국	133,644	3,826,077	129,157	3,785,947	▲3.3	▲1.0
독일	49,048	1,372,610	86,591	2,183,358	76.5	59.1
기타	246,827	7,201,425	256,009	7,432,617	3.7	3.2
합계	1,087,690	29,658,684	1,231,751	31,040,909	13.2	4.7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통계연보 (96년), 산업생산통계월보 (97년 1~11월)